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어르신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제공·복지 인프라 확충 위해 6월 준공 목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9월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통해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기존 (사)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현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새롭게 신축하는 사업이다.



노인복지회관 조감도.

해당 부지는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했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설계 및 공사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며 현재까지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남원시는 관련 절차와 공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원시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보완과 함께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여가 활동은 물론 문화·건강·소통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중·장기 행정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노인복지회관은 동충동(394-4, 395-2) 일원에 조성되며, 연면적 약 95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 대강당, 방습실, 사무실, 식당, 엘리베이터 설치 등 어르신 이용 중심의 다양한 공간을 갖춘 복합 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2억 5,600만원으로, 2023년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2025년도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시비 32억 5,600만원이 투입된다. 남원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올해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3억 2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약 64개소 내외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가 내·외관 개선 및 필수 시설·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육외간판 교체 △외부 도색 및 외벽공사, 차양막 설치 △내부 도배·도색·바닥·조명 공사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구입 등이며, 컴퓨터·가전·가구 등 자산 취득성 물품과 영업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신청 후에는 재산세 납부액과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3억 2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약 64개소 내외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가 내·외관 개선 및 필수 시설·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육외간판 교체 △외부 도색 및 외벽공사, 차양막 설치 △내부 도배·도색·바닥·조명 공사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구입 등이며, 컴퓨터·가전·가구 등 자산 취득성 물품과 영업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신청 후에는 재산세 납부액과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3억 2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약 64개소 내외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가 내·외관 개선 및 필수 시설·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육외간판 교체 △외부 도색 및 외벽공사, 차양막 설치 △내부 도배·도색·바닥·조명 공사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구입 등이며, 컴퓨터·가전·가구 등 자산 취득성 물품과 영업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신청 후에는 재산세 납부액과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혜택 확대

임실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5%~44% 대폭 상향

임실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함께, 기부금을 활용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세계 혜택 강화와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기부자의 부담은 낮추고, 군민 삶의 질은 높여준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16.5%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한해 공제율이 44%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환급액은 기존 11만 6,500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10만원까지 전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간 구간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돼 기부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군은 세액공제 혜택확대에 발맞춰 기부자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체감형 기금사업과 지역특색을 살린 단체품 발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총 14억4,880만원 규모의 9개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등 기존사업을 지속 추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기반을 다지는 한편, △반려누리 학습센터 기숙사지원,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 △저소득층 1인가구 간병비지원, △문화예술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사업을 통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지역활력 제고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방식이 본격 도입된다.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과 △오수양공 품나무 육성지원 사업이 지정기부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오수양공품나무 육성사업은 오수 초중고 양공 선수들에게 1인당 약 800만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해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2026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만큼 임실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기금을 투명하고 가치있게 사용해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웃으며 어르신이 행복 한 임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 CCTV 확대 설치·통합관제센터 운영 환경 개선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범죄 취약지역 및 생활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방범용 CCTV 약 80개소 총 247대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방범용 CCTV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성능 개선을 병행하여 지역 전반의 방범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CCTV 영상 관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제센터 장비실 내 네트워크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개선 사업은 장비실 내부의 통신·네트워크 선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장비 간 연결 불안정과 장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영상 전송 및 관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임실군은 최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임실군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및 전문가로 위원장인 심민 군수 등 당면직 위원 6명과 의료·복지·학계·현장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돌봄이 필요

한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주민이 살던 곳(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분야별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날 위촉과 함께 3월 27일부터 추진할 통합돌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확인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곤충 활용 바이오 융복합 산업 육성

남원시, 고부가가치 산업 도시 도약 준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곤충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새로운 산업으로 조성하고, 청정 자연환경과 농생명 기반을 갖춘 남원시는 곤충을 활용한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통해 농업의 한계를 넘어선 고부가가치 산업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곤충 사육·가공 기반 조성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 △기반 유치 및 창업 지원 △농가 참여형 산업 모델 구축 등 단계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바이오 관련 연구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남원형 곤충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



설계를 본격 추진, 올해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27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단 계에서는 관내 농가로 구성된 남원시 곤충산업 민관협의체와 국립농업과학원, 바이오 산업연구원, 원광대 및 기업체 등 산·학·관·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밀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위해 시간제 일자리 지원

순창군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돕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고용 부담을 덜고, 여성에게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18

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으로, 혼인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경력단절여성이다.

해당 여성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무 형태로 신규 고용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급여와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출업소와 일용 인력공급업체,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행정직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